

보도자료



바스프, 전남 여수에 전자소재 생산공장 완공

-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최첨단 화학 솔루션 생산
- 한국 및 아시아 지역 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
- 신속한 양산, 안정적인 공급, 일관된 품질 등 전자업계가 요구하는 핵심 요건 충족

2017년 11월 27일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오늘 전라남도 여수에 전자소재 생산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을 시작한다. 신규 공장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암모니아수(Ultra-pure NH₄OH)가 생산된다. 현재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세정 및 에칭용 혼합물 등 최고 품질의 전자소재 양산을 위한 설비 확장이 진행 중이다.

신규 공장은 최첨단 분석 실험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전자업계 고객들의 수요에 따라 추가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바스프 그룹 전자소재 사업부문 로타 라우피클러(Dr. Lothar Laupichler)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최첨단 전자 부품,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여수 공장은 고객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내 R&D 센터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스프의 최첨단 제조시설과 품질 분석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춘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10 나노미터 이하의 차세대

미디어 문의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소재 사업본부
홍보팀 앤드류 성 매니저
Phone: (82) 2 6395 7625
Fax: (82) 2 6050 0836
andrew.sung@basf.com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홍보대행사)
김수연 부사장
Phone: (82) 2 739 7035
Mobile: (82) 10 2390 6958
sue.kim@insightcomms.com

이화정 차장
Phone: (82) 2 739 7054
Mobile: (82) 10 4874 7803
clare.lee@insightcomms.com

이혜린 대리
Phone: (82) 739 7053
Mobile: (82) 10 3693 1613
reina.lee@insightcomms.com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소재 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7층 100-743
Phone: (82) 2 6395 7625
Fax: (82) 2 6050 0836

반도체에 사용된다. 또한 이 제품들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역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우피클러 수석 부사장은 이어 “이번 투자는 업계의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첫째는 실험실 규모에서 대량 생산으로 신속하게 전환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 둘째는 국내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마지막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3 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소재 사업본부를 서울에 설립한 바스프는 이듬해 경기도 수원에 아태지역 전자소재 R&D 센터를 개소했다. 올 초 글로벌 디스플레이 조식을 서울로 이전한 것에 이어 이번 신규 공장 완공으로 제조역량까지 갖추며, 전자 업계를 위한 통합 허브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찍게 되었다.

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는 “지난 60 여 년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온 바스프는 이번 여수 전자소재 생산공장 설립을 통해 국내 제조 역량을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바스프는 전자소재 분야의 선도적인 공급업체이며, 높은 수준의 고순도 공정 과정을 거친 스페셜티 케미컬 제품 및 전자 업계를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바스프 전자소재 아태지역본부

바스프 전자소재 사업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두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조명, 태양광, 금속 시스템 분야를 선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내에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소재 R&D 센터가 운영 중이며, 세계 각지에서 초빙된 과학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세계 유수의 기업 및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최첨단 미래기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 년 이상 고객들과 함께 전자기술의 미래를 혁신하기 위해 “We create chemistry” 라는 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바스프 전자소재 사업부는 R&D, 생산, 물류 및 공급 관리, 마케팅 인텔리전스 부문에서의 뛰어난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우수한 품질,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내 바스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는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선도적 외국 기업으로서 바스프는 국내 7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원에는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 소재 R&D 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탄, 시흥, 안산 소재에 4개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고객 대상 총 매출액은 약 11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2016년 말 기준 1,105명의 임직원이 국내에 근무하고 있다. 한국 내 바스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basf.com/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스프 그룹 소개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바스프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세계 약 11만 4천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바스프 그룹은 화학 제품,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소재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 및 가스 등 5개의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는 2016년 약 58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바스프 주식은 프랑크푸르트(BAS), 런던(BFA), 취리히(BAS)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스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asf.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